

# 문학동네 “서점조합 사실 왜곡 말라”

문학동네가 '도매 공급률' 60%에서 63%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불거진 '공급률' 분쟁이 출판계를 흔들고 있다.

한국서점연합회(이하 한서련)는 '문학동네의 일방적 도매 공급률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동네서점'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서련은 "지역 서점 존립의 근간인 공급률을 현실에 맞지 않게 일방적, 독단적으로 인상해 서점의 생존을 위협으로 보는 일부 출판사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학동네를 강력 비판했다.

이와관련, 문학동네가 "한서련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문학동네는 "한서련이 주장하는 온라인 서점의 공급률을 그대로 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학동네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률 인상 갈등으로 교보·예스24·인터파크에 지난 1일부터 도서 출고를 중지

## '도매 공급률' 논란... 일방적 인상에 출판계 흔들 한서련 "독단적 인상으로 서점 궁지로 몰아" 비판

하고 있다는 걸 잘 알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학동네는 "도매서점에 대한 공급률을 인상하지 않고도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공급률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급률 인상"에 대해,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에만 한정해서 인상하라는 주장에 동의할 용의도 있다"면서도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공급률 인상을 담보할 방안을 함께 제시해달라"고 했다.

문학동네는 문학책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 서점에 65%, 도매서점에 60%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온라인과 대형 서점에는 68.5%, 도매서점에는 63%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학동네는 "현실적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한서련의 주장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도매 서점은 물론이고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공급률도 인상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매와 대형 온라인서점 간의 공급률 격차가 기존보다 더 벌어지면 대형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와 직거래하기보다 도매서점을 거래하는 게 더 이익"이라며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흐르는 물류의 속성을 감안하면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이 출판사와 직거래를 기피하고 도매서점과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문학동네는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출

판사에게는 재앙이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기존 공급률보다도 낮은 60%의 공급률로 대부분의 책을 공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책이 없으면 서점도 없다"며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한 규탄' 같은 적의에 찬언사를 함부로 내뱉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급률은 소비자 가격 대비 공급 가격 비율을 말한다. 문학동네의 '불과 3%' 인상이지만 중소서점은 현재의 유통 구조에서 매출 1% 마진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국서점연합회는 중소 서점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체 업종 소상공인의 평균 마진율이 35%인 점을 고려해 최소 65%의 공급률(마진율 35%)이 필요하며 출판사의 공급률 인상 대상은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주자원봉사센터와 손잡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지난 18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은 소리축제 김승택 사무국장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부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리축제 사무국에서 진행됐다.

소리축제는 약 300여명의 자원봉사자인 '소리천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축제임은 물론, 통역 등 전문적인 요건과 자질을 갖춘 자원봉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풍성한 봉사 인력풀과 노하우를 갖춘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기존의 소리축제 자원봉사자인 '소리천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얻게 되는 봉사시간 인정 및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상해보험 가입 외에도 자원봉사자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아가기로 했다.

/정해은 기자



## '포켓몬 고' 한국인 이용자 100만명 넘어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이용한 한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식 출시가 안 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수치다.

이에 포켓몬 고 출시를 위해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지는 의견이 있지만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세금을 내며 사업하는 것이 선결과제란 비판도 크다.

최근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포켓몬 고를 설치해 한국에서 이용한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포켓몬 고는 국내에서 출시가 안된만큼 이 게임을 내려받으려면 운영체제(OS) 계정을 해외로 설정해 접속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치정보를 켜면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만 신호가 잡힌다. 이 같은 한계 속에서 포켓몬 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보도 등에 힘입어 가입자 유치에 성공했다.

포켓몬 고 한국인 이용자 연령대는 1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4%), 30대(14%), 40대(5%) 순으로 10대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성별로는 남성(75%), 여성(25%)였다.

/김민근 기자

## 민속국악원, 일반인 국악강좌 수강생 모집

### 내달 8~12일까지 접수

국립민속국악원은 국민 여가 선용 도모 및 국악 대중화를 위해 2016 하반기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의 초급과정(단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과목은 대금, 해금,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 총 5과목이다.

이번 강좌는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국립민속국악원 내 강습실에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과목별 각 20명과 판소리반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6만원이며, 다문화가정·저소득층·장애인은 수강료 면제(증명서 제출시)대상이다.

대금과 한국무용에서 필요한 교구는 개인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해금, 판소리, 가야금은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약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8~12일 오후6시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http://namwon.gugak.go.kr>) 또는 063-620-2319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국제기타페스티벌' 양평서 8월 개막

한국기타협회(회장 김운배)가 8월 11~15일 경기 양평 현대 블루비스타에서 클래식 기타음악 페스티벌 '제2회 대한민국 국제기타페스티벌(KIGF)'을 연다.

주최 교수로 초빙된 예일대 음대 기타과 교수이자 걸출한 기타리스트 벤자민 버더리 외에도 체코 기타리스트 레온 코데락, 상하이 음대 기타과 교수인 예뎡민, 미국 하와이우쿨렐레 연주자인 이안 오 쉐리판 등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기타리스트 이성우, 전장수, 서만재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보탠다.

연주자뿐 아니라 기타 제작자도 힘을 보탠다. 독일 기타제작의 거장 야킴 그루피우스, 일본 기타제작가 토루 나카무라, 대만 기타제작가 엘렌 슈 등이다.

총 7개국의 기타리스트와 악기제작자, 기타 관련 단체가 참여한다. 콘서트, 콩쿠르,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앙상블 등을 선보인다. 마르티네즈기타, 코르도바클래식기타, 이현규, 최동수 등의 악기 전시회도 마련된다.

한국기타협회 김운배 회장은 "55년 역사



와 전통을 가진 한국기타협회가 세계 기타인이 함께하는 국제 행사를 만들고자 노력한 끝에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154-7800 /김민근 기자



##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수상작 전시

오늘 ~ 25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은 19~25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2016년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수상작을 전시한다.

이는 도내의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관광기념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공예협동조합은 도 대표 관광기념품을 2015년부터 2018까지 매해 25점씩 순차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선정작품당 2백만원)을 비롯 인증마크 부여, 도록제작 홍보, 판매처 확보 등의 특전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조합은 기념품 생산업체가 전시·홍보·판매가 이뤄지는 기념품박람회에도 2-3회 정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관 행사, 전주한옥마을 기념품 샵에 위탁판매 등을 실시하여 상품이 항구적으로 존속하게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온라인쇼핑몰 판매도 준비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판매체계가 동시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옷걸이 생활용품, 부채, 장신구, 한지인형, 창문발 가리개 등의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수상작 전시와 관련 진정옥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은 유통·판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생활 위주의 기념품 선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관광기념품 100선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토탈 관광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31-2288.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19일>

<p><b>▷쥐띠</b> 46년생: 타인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니 도움을 받라. 60년생: 정신적인 소모가 따르는 운. 72년생: 계획했던 일에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84년생: 다른 사람의 시비수가 있으니 지중하며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p>	<p><b>▷소띠</b> 49년생: 큰 움직임만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1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매사에 주의해야. 73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p>	<p><b>▷호랑이띠</b>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운. 74년생: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고 인내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p>	<p><b>▷토끼띠</b> 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이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이니 주의하라.</p>
<p><b>▷용띠</b>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상황이 발생하니 신중하고 기다려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라.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 88년생: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전진하라.</p>	<p><b>▷뱀띠</b>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온다. 65년생: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p>	<p><b>▷말띠</b> 54년생: 주변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p>	<p><b>▷양띠</b> 55년생: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7년생: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 79년생: 혼자 해결해 나가야만 결실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앞장설수록 허다가는 시비수를 면치 못하니 조심하라.</p>
<p><b>▷원숭이띠</b> 56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68년생: 대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사리에 처우해 행동하면 화가 따르니 조심하라. 80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92년생: 동기만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p>	<p><b>▷닭띠</b> 57년생: 나이가 갈 때와 물라설 때를 구분하라.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다.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끈임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이다.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침착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p>	<p><b>▷개띠</b> 46년생: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겠다. 5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70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8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p>	<p><b>▷돼지띠</b>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실수를 주의하라. 59년생: 지나친 호의를 주의하고 언행을 삼가라. 71년생: 결의 모습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p>